

인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확장자제 품목으로 선정...실효성은 의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소식이 전해졌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운찬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 16개에 인쇄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업종신청을 받은 234개 중 45개를 1차로 걸러냈고 지난 9월말에 16개를 우선 1차로 선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지게 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 자제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고려한 최적의 조치라고 평가 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중소기업업종인 인쇄업으로서도 선정된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의 3개 등급으로 분류

이번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발표한 1차 선정 품목 16개를 보면, 세탁비누는 '사업이양' 권고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금형 등 4개 품목은 '진입자제' 품목으로 선정됐다. 또한 기타 인쇄업을 포함하여 순대, 청국장, 간장, 막걸리 등 11개 품목은 '확장자제' 품목으로 선정됐다. 가장 높은 처분인 '사업이양'으로 선정된 품목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이 있다면 철수해야 하는 데, 현재 세탁비누 사업을 하는 곳은 LG생활건강이 유일하고 전체 300억 원 세탁비누 시장에서 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미 동반위에 세탁비누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이 신규 사업을 자제토록 하는 '진입자제' 품목에는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골판지 상자, 자동차 제조부품이 선정됐다.



사실상 가장 낮은 처분인 확장자제 처분을 받은 업종에는 인쇄업을 포함한 11개 업종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재생타이어와 절연전선은 대기업의 직접생산을 자제하고, 반드시 중소기업에 위탁생산(OEM)하도록 했으며 막걸리는 대기업이 국내 판매를 위한 신규 생산시설을 만들지 않고, 수출에만 주력하도록 권고했다. 떡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SPC그룹의 떡카페 프랜차이즈 '빛은'은 매장 확장에 차질을 빚게 됐다. 간장, 된장, 고추장류는 대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저가식품에서 사업 철수하도록 했다. 이 외에 기타인쇄물, 순대, 아스콘, 청국장 등이 '확장자제' 품목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끝이 아닌 시작

동반위에서 1차 선정 결과를 의욕적으로 발표했지만 일부 대기를 중심으로 한 반발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반발의 핵심적인 논리는 '대기업'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기업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30개 대그룹 계열사들'과 '중소기업기본법상 300인 이상 사업체'가 있다. 동반위의 관계자는 사업철수나 이양을 할 때는 공정거래법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에 영역 분할이나 확장자제, 축소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개 선정품목 가운데 세탁비누를 제외한 15개 품목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 기준에 대해서 일부 대기업들은 직원 300명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동반위 권고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한계도 지적된다. 동반위에서는 대기업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지만 마땅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인쇄업계, 실효성과 범위 등 따져봐야

인쇄업계로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확장자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확장만 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중소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타 인쇄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범위의 확대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업계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선정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산업의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신호인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인쇄업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범업계적인 단합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동반성장 문화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위원회이다. 지난 2010년 12월 13일에 출범했으며 초대 위원장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취임하였다. 주요 업무 및 추진 방향은 범산업계의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기준 마련·지정·점검,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업종간 갈등요인을 발굴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 동반성장 성공모델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대·중소기업 대표단체들 간 소통의 중추적 역할 및 규범준수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